

광주 확진자 폭발적 증가...병상 부족 현실화

전대·조대병원 병상 없고 빛고을병원 병상 확충中
권영진 대구시장 “병상 제공하겠다”...이용섭 “감사”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4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루에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가용병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광주는 전남대병원 7개, 조선대병원 10개 등 총 17개의 국가 지정 치료병상과 감염전담병원인 빛고을전남대병원의 병상 47개 등 모두 64개 병상이 있다.
이날 기준 입원 환자는 전남대병원 7명, 조선대 병원 5명, 빛고을전남대병원 35명(타시도 1명 포함) 등 47명으로 남아있는 가용병상은 17개다.
빛고을전남대병원 역시 그동안 광주지역 확진자가 많지 않아 격리 병상 일부를 감축했다가 다시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실시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추이를 감안하면 병상 부족 사태가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확진자 발생과 함께 접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간호사, 간병인력, 검체 채취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병상 추가 확보와 의료진 지원을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 협조하겠다고 했다.
“달빛동맹”으로 병상 나눔을 실현했던 대구도 병상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 시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화해 ‘아침 영상회의에서 광주에 병상이 부족해 병상확보를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구에 200개 이상 병상이 있으니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우선



1일 오후 광주 동구 동명동 'CCC 아카데미센터'에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확진자 음압병실 이송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센터는 코로나19 광주지역 46명 확진자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곳이며, 이날 센터 입소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남·북 병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요청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음압병상이 각 4개씩 총 8개 등 모두 55개의 격리병상이 있다.

이 시장은 “전남, 전북과 병상 확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5개 구청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간호 인력을 전면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장성 황룡우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개장

장성군이 지난 5월 황룡우시장에 도입한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이 축산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5월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을 황룡우시장에 설치했다.
1968년에 설립된 황룡우시장(황룡면 월평리)은 장성의 대표적인 한우 경매 시장으로 4400여㎡에 5동의 계류장과 경매시설, 휴게소,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다.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가격이 적힌 종이와 오가며 경매가 이뤄지던 풍경은 사라졌다.
경매에 참여한 개인이나 사업자는 응찰기에 응찰가를 입력하고, 낙찰되면 낙찰자의 이름과 금액, 출하 농가가 경매시설 전광판에 표기된다.
그동안 장날에 맞춰 문을 열었던 황룡우시장은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장하고 있다. 또 새벽 4시였던 개장 시간도 오전 7시로 늦추고, 경매 수요가 높은 송아지 거래를 매일 2·4주로 분산하는 등 참여 농가들의 안전도 고려했다.

전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2022년까지 1000호 추진

전남도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 지정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작한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해까지 388호를 지정했으며 올해 650호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자발적인 가축 사육관리와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 조화 등 축산환경이 우수한 농장을 말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가 시군에 신청할 경우 서류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다. 지정은 5년간 유효하다.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과 현대화 사업,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축산정책 사업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남 '명량대첩축제' 취소...코로나 여파

11월1일 전승일에 소규모 행사



오는 9월 진도·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남 대표 글로벌 역사문화축제 '명량대첩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2일 전남도는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가 올해 제2차 이사회를 열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축제를 정상적으로 준비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지역 사회 확산도 우려돼 취소했다.
하지만 명량대전 불멸의 정신에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아내고 축제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기 위해 명량대첩 전승일인 오는 11월 1일 소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명량대첩 축제

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충무공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의 주제로 대표화하고 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린 각종 선양 사업을 통해 글로벌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축제를 취소하게 됐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콘텐츠 발굴 등 내실 있는 준비로 내년 축제에서 보다 더 나은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민주 전남도당, 지방의회 원구성 지침위반 조사

구례군의회 등 5곳서 해당행위 발생...제명 등 중징계 예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당의 지침을 위반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2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제8대 지방의회 후반기 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당 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일부 기초의회에서 당내 결정과 다른 의장단 선출 결과가 발생, 전남도당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제8대 지방의회 후반기 출범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간 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당에서도 지난달 중순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해당 시·도 당위원회 또는 지역위원장의 참관 하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결과 전남 22개 기초의회 가운데 5곳에서 당내 경선

과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당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
간진군의회의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이 실제 투표에서는 탈락했고, 부의장은 민생당 소속 의원이 선출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구례군의회에서도 사전 결정된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고, 목포시의회와 곡성군의회는 무소속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또 나주시의회는 사전 조율에 반발해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전남도당은 해당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오는 1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 지침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